

[사회]

■ 순천 이주여성 35명 온라인 한글 교육 수료

남편과 함께 공부하니 한글 '쑥쑥' 사랑 '쑥쑥'

“우리 온라인으로 한글 공부했어요.” 한국디지털대학교(총장 김종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남도내에 사는 이주 여성 4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한글 교육프로그램인 ‘다문화 가정 e-배움 캠페인’을 운영했다. 5개월이 지난 17일, 순천지역에서 온라인 한글교육에 참여했던 35명을 대상으로 한 수료식이 순천시청에서 열린다. 첫 수료식인 셈이다. 포스코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국어를 비롯한 베트남어·중국어·일본어·영어 등 5개 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주여성에게 편한 언어를 통해 한글을 습득할 수 있다. 현재 개설된 과정은 한국어 입문, 한국어1~3, 한국문화 등 5개. 각 과정당 7개의 강좌가 마련돼 있다. 한 강좌를 듣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다. 다양한 음악과 그래

픽이 이해를 돕는 것도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디지털대는 지난해 초 담양과 경북 구미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전남과 경북 전체 시·군으로 대상을 넓혔다. 올해 3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담양에서 과정을 수료한 캠퍼사 오양(여·25·베트남 출신)씨는 “학교나 기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과 달리 남편과 함께 집에서 공부할 수



필리핀 출신 리리라 파블로(29·담양군·왼쪽)씨가 자신의 집에서 남편 박춘호(35)씨와 컴퓨터를 이용해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한국어 강좌를 듣고 있다. <한국디지털대 제공>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온라인 교육 덕에 인터넷도 잘 하게 됐어. 이제 베트남 음악도 혼자 찾아 듣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대 정유정씨는 “언제든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며 “앞으로 몽골어·태국어 서비스를 추가하고, 기초 베트남어 등

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남편들이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캠페인 홈페이지(e-campaign.kdu.edu)에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6361-1962~6.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감기 조심하세요 1월 17일 (음 12월 10일) <전국날씨>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틀렸다.

광주	구름 조금	-4~3℃
전남	구름 조금	-2~3℃
전북	구름 조금	-3~4℃
충청	구름 조금	-2~3℃
경상	구름 조금	-6~3℃
강원	구름 조금	-3~3℃
제주	구름 조금	-4~4℃
서울	구름 조금	-4~5℃
부산	구름 조금	-6~3℃
대구	구름 조금	-4~1℃
인천	구름 조금	-3~3℃
대전	구름 조금	-7~1℃
울릉도	구름 조금	-8~2℃
독도	구름 조금	-1~1℃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3.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남해동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8:51 썰물 < 01:23
목포 밀물 < 20:52 썰물 < 14:17
여수 밀물 < 03:52 썰물 < 09:57
여수 밀물 < 15:57 썰물 < 22:29

▲해돋이 07:40 ▲해질 17:45 ▲달돋이 12:26 ▲달질 01:59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씨						
최저/최고	-3/4	-3/5	-1/7	4/6	1/4	-2/3



오는 19일까지 전남대에서 '제7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를 개최중인 전교조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50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 참교육 실천 사례 등을 발표한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심야학습 등 잠 적게 자는 학생 가출·자살 총동 더 느낀다

심야학습 때문에 잠 적게 자는 청소년들이 가출총동과 자살총동이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홍 광주대교수)는 지난해 10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2천8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7%(1천193명)가 가출총동을 느꼈고, 36%(1천86명)가 자살총동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특히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학생은 59.7%가 '가출총동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수면시간이 5시간인 경우는 45.7%, 6시간 42.1%, 7시간 37.2% 등 나타나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가출총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총동도 4시간 이하(49.6%), 5시간(43.5%), 6시간(34.7%), 7시간(26.7%)으로 가출총동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집에서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도 가출·자살총동이 높았다. 가출총동은 오전 6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이 52.2%, 6시~6시30분 57.3%, 6시30분~7시는 49.3%, 7시~7시30분 41.8%, 7시30분~8시 36%, 8시~8시30분 31.9%로 나타났다. 자살총동 역시 같은 시간대로 각각 44.1%, 47.4%, 41.2%, 36.4%, 29.6%, 24.8%로 일찍 등교할수록 총동이 높았다.

잠을 적게 잘 수록 가출·경험도 많았다. '4시간 이하' 잠을 자는 학생(140명) 중 16.4%(23명)가 '가출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시간(5%), 6시간(4.6%), 7시간(4.1%) 순이었다. 평일 등교시간이 빠를수록, 밤늦게 집에 들어갈수록 가출경험이 많았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이 당선인 교육정책 서열화 심화” 오인 신고 소방차 출동만 과태료 20만원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학생이 지원과 혜택을 독점하도록 해 명품교육, 명문대 입학 경쟁, 입시준비로 교육을 변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다가올 총선에서도 여러 정당 후보·대표들에게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경쟁일반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교개혁의 모델을 만들고 교장 공모제 보완·확대 등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 달부터 광주시내에서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이나 연기를 피워 화재비로 교육을 변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 등을 담은 '화재예방조례'가 1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의 경우 연막소독 등으로 발생한 연기를 화재로 오인 신고,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가 전체 출동 건수의 2천963건의 53.2%인 1천577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전남 214개 기관·업체 SW 불법 복제 사용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214개 기관과 업체가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체신청(청장 김치동)은 16일 지난해 한해 동안 광주·전남지역 301개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14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체신청은 301개 기관 2천854대의 PC에 설치된 1만1천265개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불법복제 여부를 검사해 이중 11.3%인 1천269개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제품임을 확인했다. 이 같은 불법복제율은 2006년 11.5%에 비해 약간 낮아졌고 전국 평균(26.6%)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해 판사 80여명 법복 벗는다

법원이 다음 달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올해 법원을 떠나는 전국의 판사들이 8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정확한 퇴직 판사의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올해 퇴직자 수는 2000년 이후 60~70명으로 알려졌던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 11일까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는 60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달 말에 대법관 1명이 제정되고, 다음 달 고등부장 전보 인사가 나면 탈락한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의 법관들이 대거 법원을 떠날 것이라 법원

안팎의 예상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 고위법관으로는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3기)과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연수원 7기)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등부장급 고위법관으로는 서울고법 김수형 부장판사(11기)와 같은 법원 이영구(13기)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부장급 판사로는 대법원 전원열 재판연구관(19기)과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된 이상원 재판연구관(21기), 이준승 사법연수원 교수(20기)를 비롯해 다수의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광주 농산물 4.4% 농약 잔류량 기준 초과

광주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00개 가운데 4~5개 품목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이 지난해 광주 시내 시장과 할인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천465건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4.4%인 64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

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9건), 부추(8건), 참주(7건), 시금치(4건), 치커리(4건) 등으로 채소류의 부적합 빈도가 높았다. 시금치는 노지 재배가 많은 여름철보다 시설하우스 재배가 활발한 겨울철 출하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년의 행복 이어가는 단정피로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정통우리는 깨끗한 심빙세탁정선도한 마음을 담아 차려드립니다

떡양산과

☎ (061) 383-8283

동성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서경빌딩임대

368-8889

임대

160평 (부대기10)